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1990-2009년 게재 논문의 연구 대상, 내용, 방법을 중심으로

A Trends Analysis of Research on Children's Daily Stres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공

전임강사 최 나 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서 주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진 경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Full time Instructor : Choi, Naya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Lecturer : Suh, Joo-Hyu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Assistant Researcher : Kim, Jin-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in children's daily stress from 1990 to 2009. A total of 97 articles were selected from 30 Korean journals in the field of child develop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psychology and so on. We analyzed the trends of research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participants, themes, and methodology by 5 years, and discussed the features of major stress sca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research on children's stress started in the first half of the 1990s and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latter half of that decade. In the following decade, more various journals dealt with articles on children's stress, and more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intervention of stress. Secondly, many studies investigated the developmental change in stres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ame age group. The younger preschoolers participated in studies as years go by, indicating that the age of suffering from stress was downward. Thirdly, most research used stress as a dependent variable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stress. Fourthly, questionnaires, observation and interview were used as methods to measure children's stress, while qualitative research was rarely conducted. Lastly, scales to measure children's stress should be revised and developed, especially for succeeding research in the area of early childhood.

▲주요어(Key Words) : 유아(preschoolers), 학령기 아동(school-aged children), 스트레스(stress)

* 주 저 자 : 최나야 (E-mail : choinaya@catholic.ac.kr)

** 교신저자 : 서주현 (E-mail : joohyunseh@hanmail.net)

I. 서론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인의 생활상은 사회에 속한 그 누구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게 하였다. '개인에 행해진 모든 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정 반응'을 의미하는 스트레스는 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자신과 환경 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증가시키는 내적·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Humphrey, 2004). 그러므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또한 사회의 변화에 개인이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경쟁사회일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부모, 선행학습, 과밀하고 획일화된 학교환경, 또래 간의 경쟁, 핵가족화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 놀이를 위한 공간 및 시간의 결핍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저학년 아동들은 친구관련 스트레스를 고학년 아동들은 학업과 교사관련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지각한다고 한다(김길임·심희옥, 2002). 그런데 최근에는 취학 전의 유아들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김정원·이정화, 2002; 정동화, 2002; Henniger, 1994). 맞벌이 가정의 증가, 보육 연령 저하, 경쟁 지상주의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조기 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가 나타나, 점점 더 어린 유아들에게까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느끼는 연령은 점차 하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세대를 반영하듯, 아동상담기관과 신경정신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 원형 탈모, 비만, 수면 문제 등의 증상을 비롯하여 우울, 정서불안, 주의산만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신의진, 2002; O'brien, 1998), 이에 따라 조기 교육이 유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우남희 등, 2005).

어린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대, 입원, 이사, 전학,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실직 등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성인에게 귀중을 듣거나 친구와 다투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에서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나뉜다(Band & Weisz, 1988). 초기 스트레스 연구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특정 사건들에 주목함으로써 중대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특정 집단만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즉,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성가시거나 좌절감, 긴장감, 분노, 공포심,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 거부감 등이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염현경, 1998; Lazarus &

DeLongis, 1983).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의 증가는 전자와 같은 특정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따른 스트레스보다 후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대한 사건들과 개인의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상관계수가 .12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한미현·유안진, 1996). 반면, 일상에서의 문제들은 극적이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적응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Johnson & Rornstein, 1991; Lazarus & Folkman, 1984; Waters et al., 1993). 따라서 유아와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관련 결과를 규명하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유아 및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크게 스트레스의 요인과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아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는데, 국외연구들(Elkind, 1988; O'brien & Iannotti, 1990; Parfenoff & Jose, 1989)에서 밝혀진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중 공통된 것은 부모관계, 교사와 교우관계를 포함하는 학교 환경, 그리고 신체적 손상이나 병원 치료 등을 포함하는 건강에 관련된 요인 등이다. 국내연구를 통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의 결혼만족도 등의 가족 변인(고영미, 1995; 조소진·문혁준, 2006)과 유아의 기질 및 배경 변인(문혁준, 2006), 그리고 기관의 질이나 집단의 크기 등 학교환경(안라리, 1995; 이윤경, 1992) 등이 아동 스트레스의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본 아동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은 대인관계, 학업성취 압력, 집단생활 부적응, 학교에서의 지원 결여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는데(홍광식, 1994),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특히 학업 관련 요인의 영향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와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유아들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고(박은주·조희숙, 2001),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이 누적되어 이후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은 유아들은 손톱 물어뜯기, 신체적 적대행위, 잦은 싸움, 경련, 신경증적 웃음 등, 사소한 반응부터 심각한 문제행동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Burts et al., 1990). 염현경과 김태연(1999)도 스트레스가 유아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령기 아동들은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고(한미현·유안진, 1996), 우울 성향을 보인다(신은영·김경연, 1996). 또한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집단 괴롭힘의 원인 중 하나도 스트레스이다(Natvig et al., 2001; Taki, 2001). 즉,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은 또래 괴롭

힘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하기 쉬우므로(김길임·심희옥, 2002),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부적응도 스트레스의 결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어린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해 탐색하고 발달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중재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 중에는 스트레스의 개념 및 영향 요인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우희정, 1996)가 있을 뿐,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점에서 유아 및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어떠한 척도가 사용되어 왔는지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자들의 관점과 이론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요약된 정보와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며, 앞으로의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새로운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이나 설계방식의 변화와 같은 연구 방법 상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염현경, 1998; Lazarus & DeLongis, 1983) 일상적 스트레스를 '유아와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이란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 일, 병원에서 주사 맞는 일, 친구가 놀리는 일, 몸을 다치는 일 등과 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을 말한다(Parfenoff & Hose, 1989). 이는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부모나 중요한 타인의 사망 등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그로 인한 영향이 뚜렷하지만 다수에 의해 보편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에 반해, 이와 구별되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경험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이란 좌절감, 분노, 공포,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 거부감, 긴장감 등의 정서를 의미한다(염현경, 1998).

유아와 아동이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을 분석하여 연구 대상, 내용, 측정 방법의 시기별 경향을 파악하고, 특히 스트레스 측정 방식에 주목하여 영향력 있는 척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상위분석을 통해 유아기와 아동기의 스트레스에 관한 학문적 관심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고, 앞으로 더욱 활발히 수행될 어린이 스트레스 연구의 바탕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1990년-2009년 사이 유아·학령기 아동 스트레스 연구의 시기별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1990년-2009년 사이 유아·학령기 아동 스트레스 연구 대상에 나타난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1990년-2009년 사이 유아·학령기 아동 스트레스 연구 내용에 나타난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1990년-2009년 사이 유아·학령기 아동 스트레스 연구 방법에 나타난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1990년-2009년 사이 유아·학령기 아동 스트레스 연구에 사용된 주요 척도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 12월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 후보인 유아, 아동 관련 학회지에 1990-2009년 사이에 게재된 유아·아동 스트레스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령기 아동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함께 중학교 1, 2학년이 비교대상으로 포함된 연구들은 분석 대상 논문으로 포함하였다. 선정된 분석 대상은 아동학회지, 아동교육, 유아교육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열린유아교육연구, 대안가정학회지,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학교, 한국생활과학회지, 놀이치료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초등교육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등 총 30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97편이었다. 전체 학회지 목록과 논문 편수는 <표 1>과 같다.

2. 분석 절차

학회지별, 전자데이터베이스별 검색을 통해 대상 연구를 선정하였다. 비만 스트레스, 학업(학습)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정 내 스트레스 등 특정 요인에만 집중하여 연구한 경우 또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나,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모의 육아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논문은 제외하고, 유아·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로 제한하였다.

논문 검색은 네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 유아, 아동, 가정 관리와 관련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지 5종을 우선

<표 1> 분석 대상 학회지와 해당 논문 수

(N=97)

구분	학회지명	발행 기관명	등재후보지 선정연도	등재지 선정 연도	분석 논문 수(%)
아동학, 보육학	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1998	2003	10(10.31)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1	2006	2(2.06)
유아교육학	유아특수교육연구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05	2008	1(1.03)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1998	2001	5(5.15)
	열린유아교육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1	2004	1(1.03)
	미래유아교육학회지	미래유아교육학회	2002	2005	6(6.19)
	어린이미디어연구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06	.	1(1.03)
가정학, 생활과학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1998	2001	11(11.34)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	2003	1(1.03)
	한국생활과학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	2003	2005	4(4.12)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3	2005	3(3.09)
교육학	아동교육	한국아동교육학회	2005	.	9(9.28)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2000	2005	1(1.03)
	교육방법연구	한국교육방법학회	2004	2007	1(1.03)
	교과교육학연구	이화여대 교과교육연구소	2007	.	1(1.03)
	교육문제연구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2003	2007	3(3.09)
	초등교육연구	한국초등교육학회	2001	2004	6(6.19)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2000	2004	1(1.03)
	음악교육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	2003	2006	1(1.03)
심리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한국심리학회	1999	2002	2(2.06)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한국심리학회	1999	2002	1(1.03)
사회복지학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7	.	1(1.03)
치료, 상담학	놀이치료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한국놀이치료학회	2007	.	6(6.19)
	정서행동장애연구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2000	2003	2(2.06)
보건, 간호학	아동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	2003	2006	3(3.09)
	한국학교보건학회지	한국학교보건학회	2007	.	8(8.25)
	한국모자보건학회지	한국모자보건학회	2002	2005	1(1.03)
체육학	한국스포츠리서치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	3(3.09)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999	2002	2(2.06)
계					97(100)

선정하고 학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둘째, 국내 학술지를 다루는 3개의 전자 데이터베이스(DBpia, KISS, RISS4U)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 후보인 학회지에 1990-2009년 사이에 실린 유아 또는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를 검색하였다. '유아', '아동',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라는 검색어를 조합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이를 통해 얻은 논문 목록에서 1차 검색에 포함되지 않은 25개 학회지에 대해 학회지별 재검색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보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통해 검색에서 누락된 연구를 추가하였다.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 논문 중 일부에 대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색된 97편의 논문 중에서 18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세 연구자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5개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 중 연대별 동향과 척도의 장단점 분석을 제외한 연구 대상, 내용, 방법에 대해 각각 예비분석 결과를 구하고 각각 분석 기준을 결정하였다. 예비 분석에서 세

연구자가 모두 동일한 평가를 보인 비율은 각각 연구 대상 100%, 내용 83.33%, 방법 100%이었다.

예비 분석에서 결정·보완된 기준에 따라 전체 97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판단이 어려운 논문의 경우는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연대별 연구 동향을 알아보았고, 연구 대상, 내용, 방법에 대해 5년 단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요 척도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기준이 중복되는 자료는 중복 응답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3. 분석 범주

1) 연대별 연구 동향

시기별로 특정 주제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김영천과 조재식(2001), 허우정과 황해익(2006), 유수경과 황해익(2007)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0년에서 2009년까지 20년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즉, 학회지 발간일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 4개 연대로 나누어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시기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이분옥 등(2006)의 연구와 한태숙 등(2005)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으로 근거로 연구 대상의 연령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단일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혼합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만 3~5세를 유아, 초등학교 1~3학년을 저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을 고학년으로 범주화하였다. 먼저 만 3~5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아), 만 3~5세와 초등학교 1~3학년을 비교한 연구(유아+저), 초등학교 1~3학년을 살펴본 연구(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저+고), 초등학교 4~6학년을 살펴본 연구(고),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비교한 연구(고+중)로, 총 6가지로 범주화하여 연구대상의 시기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메타분석이 아닌 ‘유아·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라는 하나의 주제에 관한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중 어떤 변수로 지정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연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설계적 측면에 따른 기준, 즉 스트레스가 유아 및 아동의 발달 및 생활상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삼은 연구, 그리고 스트레스를 매개(중재)변수로 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로 분류하여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변수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변수의 내용은 선행연구(곽금주 등, 1993; 우희정, 1996)를 참고하여 연구대상자의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나누고, 개인의 내적 변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한 경우 이를 총체적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초기 연구 중, 인구사회학적 변인만을 다룬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 기준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 거주지 등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자기인식, 지능, 내외통제 소재, 대처 양식 등은 개인 내적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보육 환경,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경험 여부 등의 변인은 유아와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으로, 개인 내적 변인과 함께 외적 환경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경우는 총체적 변인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변인은 기타의 총 다섯 가지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4) 연구 방법

김지영(2006), 최미숙과 황운세(2004), 한태숙 등(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의 기준을 근거로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검사법, 문헌 고찰, 기타의 6가지 연구 방법을 분석의 범주로 삼았다. 관찰법은 행동을 관찰하여 객관적 방법으로 기록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면접법은 피면접자가 질문에 대답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이 직접 질문지를 읽고 응답을 표시하는 방법이고, 검사법은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의 반응을 구하는 방법이다. 문헌 고찰은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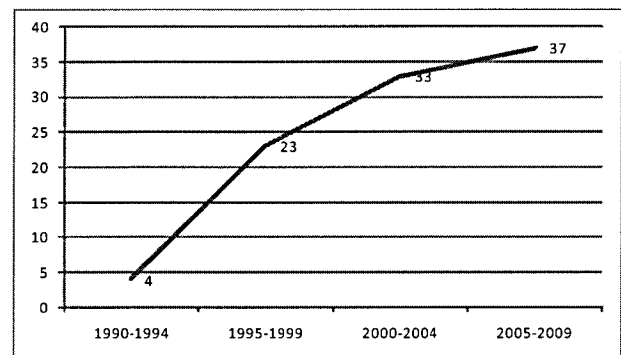
5) 척도 특성

연구 방법별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스트레스 척도를 선별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세 연구자가 논의하였다. 논의한 내용과 함께 척도의 요인별 내용 및 구체적인 측정 방법, 추후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시기별 연구 동향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시기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회지 발간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시기를 5년 단위로 나누었다. 연구의 수는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에 시기별 연구 동향을



<그림 1>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연구의 시기별 추이 (N=97)

<표 2>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상의 동향

(N=97)

시 기	연 령	유 아	유아+저학년	저학년	저학년+고학년	고학년	고학년+중1·2학년	계
1990-1994		2(2.06)				2(2.06)		4(4.12)
1995-1999		2(2.06)	3(3.09)		3(3.09)	9(9.28)	6(6.19)	23(23.71)
2000-2004		7(7.22)	1(1.03)	1(1.03)	3(3.09)	20(20.62)	1(1.03)	33(34.02)
2005-2009		7(7.22)	1(1.03)	3(3.09)	3(3.09)	22(22.68)	1(1.03)	37(38.14)
계		18(18.56)	5(5.15)	4(4.12)	9(9.28)	53(54.64)	8(8.25)	97(100.0)

주. 논문 수(%)

나타내었다.

먼저, 1990-1994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4편(4.12%) 뿐이었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80년대의 논문부터 검색을 하였으나,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논문이 없었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5~1999년 사이에는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해 총 23편(23.71%)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90년대 전반에 비해, 연구가 상당히 많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2004년에는 33편(34.02%)의 연구가 검색되었는데, 90년대 후반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회지에 스트레스 연구가 게재된 점이 눈에 띈다. 가정관리, 유아교육, 아동학 관련 학회지 이외에, 놀이치료,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 교육문제, 스포츠 관련 학회지 등, 더욱 분화된 영역의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특수교육이나 치료, 스포츠 중재 등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다룬 연구가 등장했다는 점이 고무적인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2005-2009년에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총 37편(38.14%)이 게재되었다. 2000년대 전반에 비해, 영유아 관련 학회지가 증가하였으며 놀이치료 관련 논문의 비율도 한층 증가하였다.

2. 연구 대상의 동향

연구 대상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만 3~5세의 유아, 초등학교 1~3학년인 저학년, 4~6학년인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이 단일연령인지 혼합연령인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이뤄진 전체 연구 97편 중, 단일연령은 31편으로 31.96%에 해당하였다. 그 중, 초등학교 6학년 9편(9.28%), 5학년 6편(6.19%), 4학년 5편(5.15%), 2학년 1편(1.03%), 1학년 2편(2.06%), 만 5세 7편(7.22%), 만 4세 1편(1.03%)으로 나타났다. 유아보다는 학령기 아동, 그 중에서도 고학년 아동들을 주로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질문지를 주로 이용하는 연구방법 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혼합연령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1990년대 전반에는 유아 대상 2편(2.06%), 초

등학교 고학년 대상 2편(2.06%), 총 4편(4.12%)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995-1999년의 23편 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연구가 9편,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비교한 연구가 6편으로, 고학년을 포함한 연구가 15.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비교한 연구가 3편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비교한 연구가 3편 등장하였다. 2000년대 전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연구가 20편(20.62%)으로, 이 시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총 33편 중 과반수를 차지했다. 괄목할만한 점은 유아 대상의 연구가 7편(7.22%)으로 90년대 후반의 2편(2.06%)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22편(22.68%), 유아 대상 7편(7.22%),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비교 연구 3편(3.09%),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3편(3.09%)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에 따른 2000년대 전·후반의 연구 동향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에 시기별 연구 대상의 동향을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3. 연구 내용의 동향

앞에서 상술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설계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 설계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다룬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총 59편에 달하며 이는 전체 연구의 60.8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스트레스가 독립변수로 설정된 연구, 즉 스트레스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발달 및 생활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현저히 적어 25편(25.77%)에 불과하였고,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다룬 연구는 3편(3.0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유아·아동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감소시키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편중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특히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설계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스트레스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는 요인들 간의 총체적인 양상을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3>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설계에서 스트레스의 역할 (N=97)

연구설계	연 대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계
독립변수		0(0)	5(5.15)	6(6.19)	13(13.40)	24(24.74)
매개변수		1(1.03)	2(2.06)	0(0)	1(1.03)	4(4.12)
종속변수		3(3.09)	10(10.31)	25(25.77)	21(21.65)	59(60.82)
기 타		0(0)	6(6.19)	2(2.06)	2(2.06)	10(10.31)
계		4(4.12)	23(23.71)	33(34.02)	37(38.14)	97(100)

주. 논문 수(%)

<표 4>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설계에서 관련 변수의 동향 (N=97)

연구 주제	연 대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계
인구사회학적 변인		1(1.03)	5(5.15)	2(2.06)	0(0)	8(8.25)
개인 내적 변인		1(1.03)	6(6.19)	9(9.28)	11(11.34)	27(27.84)
환경적 변인		2(2.06)	5(5.15)	11(11.34)	19(19.59)	37(38.14)
상호작용 변인		0(0)	1(1.03)	6(6.19)	4(4.12)	11(11.34)
기 타		0(0)	6(6.19)	5(5.15)	3(3.09)	14(14.43)
계		4(4.12)	23(23.71)	33(34.02)	36(37.11)	97(100)

주. 논문 수(%)

연구 설계상, 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기별로도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43.48-75.76%). 그리고 1995년 이후로는 각 연도별로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바를 탐색한 연구들이 그 뒤를 잇는데(18.18%-35.14%),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본 연구들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장 초기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구 중에는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연구한 예가 전혀 없었다.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연구한 예는 그 수가 미미하여 각 연도별로 1, 2편에 그쳤다. 1995-1999년대에 기타 연구로 분류된 연구 6편 중에는 척도개발 연구가 총 5편으로서, 이 시기에는 국내에서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가 다수 개발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각 시기별 몇몇 특징을 제외하고는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에 편중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함께 연구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시기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연령, 성별, 거주지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다룬 연구, 자아개념, 내외 통제소재 및 대처양식을 포함한 개인 내적 변인을 다룬 연구,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영향력 등 환경적 변인을 다룬 연구, 그리고 개인적 특성 및 환경을 아우르는 상호작용 변인을 다룬 연구들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론적 고찰 및 척도 개발 등 분류에 적합지 않은 연구들은 기타 연구로 분류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아동의 내적 변인이나 환경적 변인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스트레스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특히, 2005-2009년 사이에 이루어진 환경적 요인을 다룬 연구들 중에는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본 경우가 총 12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요인을 다룬 연구 역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각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질적으로도 보다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스트레스와 단일 변수 간의 단순한 관계를 살펴보았던 것에서 보다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여러 변수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4. 연구 방법의 동향

대상 연구들이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방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김지영(2006), 최미숙과 황윤세(2004), 한태숙 등(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의 기준을 근거로 관찰, 면접, 질문지, 검사, 문헌 고찰, 기타의 6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예비 분석과 본 분석 모두에서 검사를 사용한 연구나 기타 방법은 한 편도 없었다.

<표 5> 자료 수집 방법의 시기별 동향

(N=100, 중복 반응)

방 법	연 대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계
관 찰		1(1.0)	3(3.0)	1(1.0)	4(4.0)	9(9.0)
면 접		0(0)	2(2.0)	7(7.0)	6(6.0)	15(15.0)
질문지	유아, 아동	1(1.0)	17(17.0)	25(25.0)	28(27.0)	71(70.0)
	부 모	2(2.0)	0(0)	0(0)	0(0)	2(2.0)
	교 사	0(0)	0(0)	0(0)	2(2.0)	2(2.0)
문헌 고찰		0(0)	1(1.0)	0(0)	0(0)	1(1.0)
계		4(4.0)	23(23.0)	33(33.0)	39(39.0)	100(100)

주. 논문 수(%)

분석 결과, 전체 97편의 논문 중에서 우희정(1996)의 문헌 고찰과 김용수와 박현주(2008)의 문화기술적 연구를 제외하 나머지 연구들은 모두 양적 연구였다.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사례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 우희정(1996) 이외의 나머지 연구에서는 모두 관찰, 면접 또는 질문지 조사에 의해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관찰과 면접을 사용한 연구들은 예외 없이 결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다시 유아나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로 나뉘었다.

전체적으로, 관찰법을 사용한 경우는 9편(9%), 면접법을 사용한 경우는 15편(15%)이었다. 이에 반해, 75편(75%)의 논문에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이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직접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게 한 경우(71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낸 연구 방법의 시기별 동향은 <표 5>와 같다. 2005-2009년 사이에는 관찰과 면접을 함께 사용한 연구가 2편, 아동과 교사에게 동시에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가 1편 포함되어 전체 합이 총 연구의 수보다 크다.

시기별로 각 연구 방법별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배경으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과 검증 등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질문지의 개발(민하영·유안진, 1998; 한미현·유안진, 1995)과 더불어, 유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관찰법(이윤경, 1994)과 면접법(염현경, 1998)이 사용되어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이끌었다. 이 척도들은 2000년대에도 계속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증가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스트레스 척도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로 26편(26%)에서 사용되었고, 염현경(1998)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KPDSS)'는 14편(14%),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10

편(10%), 이윤경(1994)이 번안한 '교실내 아동 스트레스 행동 관찰 척도(Classroom Child Stress Behavior Instrument, CCSBI)'는 7편(7%)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미현·유안진(1995), 염현경(1998), 민하영·유안진(1998)은 척도 개발 논문 자체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위의 척도들은 원본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연구 주제와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2005-2009년 사이에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자료 중의 일부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4편 있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은 최근 대규모 패널자료를 이용한 아동, 청소년 발달 연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

5. 스트레스 척도의 특성

위의 연구문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본 지난 20년간의 연구들은 주로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각 연구 방법별로 대표적인 척도로 나타난 도구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발해야 할 스트레스 척도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유아 스트레스 행동을 관찰하는 이윤경(1994)의 측정 도구는 Burts 외(1990)의 CCSBI(Classroom Child Stress Behavior Instrument)를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흥미영역에서의 개인별 활동, 소집단 활동, 교사 주도의 대집단 활동 등을 포함하는 19개의 활동 형태와 65개 항목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에는 신체와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행동, 무반응/부정적 스트레스 행동, 방관하기가 포함된다. 반면,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는 저절로 나타나는 행동, 반복적/제한된 움직임, 몸부림/꿈틀거리기 행동, 자기 파괴적인 행동, 학급 주류에서 이탈하는 행동, 생리적 반응, 깊은 한숨 쉬는 행동 등의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적대적/공격적 행동, 의존적 행동, 역기능적인 언어행동,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남을 건드리는 행동 등의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파괴적 행동, 무과파적 행동 등의 물체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척도를 사용할 때에는 관찰자가 대상 유아들의 스트레스 행동을 25초 간격을 두고 5초 관찰하는 시간표집방법을 사용하고, 무작위순으로 관찰한다. CCSBI를 통해 개인별 활동, 소집단 활동, 교사주도의 대집단 활동 등, 활동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을 비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실제로 발달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의 유아들이 전이 시간이나 흥미 영역 활동시간에 더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Burts et al., 1990; 이운경, 1994). 따라서 CCSBI는 유아가 학급 내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발달에 적합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한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척도에는 소극적 행동(13항목)보다 적극적 행동(52항목)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예의 범절을 강조하고, 개별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며, 집단에 순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스트레스 행동이 외부로 발현되기보다는 내재적으로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한국의 유아들은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보다는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는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CCSBI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관찰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이 도구는 학급의 크기와 학습 활동형태 등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김혜경·류왕효, 2006; 류정수, 1996; 박화윤, 2005; 박화윤 등, 1998; 양혜영·정승원, 1999; 이운경, 1994; 정성배, 2003; Burts et al., 1990). 그러나 유아는 유아교육기관 뿐 아니라 가정이나 그 외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관계를 형성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 가족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유아교육기관 외의 다른 사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며 받는 학업관련 스트레스 등 일상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양하다. 따라서 유아의 스트레스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CCSBI로는 가능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이 척도에 포함된 구체적인 관찰 항목을 보면 스트레스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까지도 스트레스 반응행동으로 무리하게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종이에 낙서하기', '물체를 잡다가 놓치는 행동' 등은 유아들의 발달과 행동 양상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행동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 행동과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구분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엄현경(1998)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KPDSS)'는 만 3~6세의 개별 유아 대상 면접 척도이다.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된 이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스트레스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KPDSS는 불안좌절감, 자존감 상함, 비난과 공격적 상황에 접함이라는 3요인의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는 첫 단계는 스트레스 상황을 묘사한 그림 자료를 유아에게 보여주며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는 것이다. 둘째, 만일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유아의 그 때 반응을 묻고 이 반응을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느끼지 않았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앞에서 유아가 스트레스를 지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역시 그림 모형을 이용해 3단계로 스트레스 정도를 평정하게 한다. KPDSS는 남아와 여아에게 분리 적용하는 그림 카드가 있어 각 상황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보완해준다. 또한 문해능력의 발달 수준에 대한 우려 없이, 묻고 반응을 기록하는 면접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검사 소요 시간도 15-20분으로 짧아 적용이 편리하다.

그런데 이 척도의 문항들은 '엄마, 아빠께 야단맞을 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하거나 먹을 수 없을 때'와 같이 기술되어 있어 유아가 최근 경험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아닌, 일반적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유아 대다수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각 항목에 대해 대상 유아가 '경험이 있다'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항목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1, 2, 3단계 중 어느 정도인지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질 뿐, 각 유아가 검사 당시 지니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위에서 예로 든 '-할 때'와 같이 기술된 문항들이 있는 반면, '집에 혼자 있는 것', '어두운 곳에 있는 것'과 같이 기술된 문항도 있다. 비록 검사자의 직접 질문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형식으로 기술된 문항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비난과 공격적 상황은 개념상 서로 차별화됨에도 불구하고 한 요인으로 묶여 있고, 자존감 상함 요인의 하위 문항들은 실제적으로 불안이나 좌절감과 매우 가까우며, 비난과 공격적 상황에 접함 요인의 문항들도 그러한 상황이 불안, 좌절감, 자존감 상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요인 구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불안좌절감과 자존감 상함은 정서적 측면을 다루고, 비난과 공격적 상황에 접함은 상황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 유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요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아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해, 응답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 중심의 문항 기술과 보다 명확한 요인화가 요구된다.

셋째, 질문지법을 이용한 연구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도구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

한 척도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한미현·유안진, 1995)를 살펴보면, 이 척도는 6개 하위 영역의 총 42문항으로 개발되었다. 6개 영역은 각각 6-8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 영역, 가정환경 영역, 친구 영역, 학업 영역, 교사·학교 영역, 그리고 주변환경 영역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척도는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아·아동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척도 그대로, 혹은 재수정을 거쳐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이기도 하다. 이 척도는 여러 국내외 척도를 종합하여 문항을 구성하면서 기존 척도들이 고려하지 못한 측면과 부모들의 과잉 교육열로 인한 문제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성격과 관련되거나 새로 대두된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척도들에 포함되었던 개인 영역 요인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제외되었다. 이는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아직 자아 인식이 약한 아동기 특성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어린 시기부터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외모, 성격, 능력, 개인 시간 등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이 많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김미예, 2005; 김용수·박현주, 2008; 박원희·오윤자, 2008; 조봉환, 2006), 개인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1995년 개발 당시에는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짜증이 난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잘 사주지 않아 불만이다', '집이 좁아서 속상하다', '친구들이 나를 놀려 화가 난다', '시험을 볼 때마다 초조하고 긴장이 된다' 등과 같이 기술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3단계로 답하게 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화가 난다', '힘들다', '불편을 느낀다', '피곤하다', '부담스럽다', '고민이 된다', '걱정이 앞선다', '방해가 된다', '싫다', '짜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등 서술어가 지나치게 다양하게 제시되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여러 문항들이 서로 유사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는 응답 당시에 지각하는 스트레스보다는 다소 일반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해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한미현·유안진, 1996) 아동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부터 '많이 받는다(4점)'까지 4단계 중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문항의 제시 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논문에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민하영·유안진, 1998)는 5개 도시에서 다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학령기 아동들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

레스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총 48개 문항이 5개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모관련 영역이 20문항, 친구관련(소외적) 영역이 10문항, 학업관련 영역이 8문항, 친구관련(피해적) 영역이 7문항, 교사관련 영역이 3문항으로, 한미현 등(1995)의 척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스트레스 영역은 배제되었다. 이와 같이 명명된 각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관련 영역의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자기보고를 하는 아동은 지난 3개월 동안 '매우 슬프거나 괴롭거나 짜증나게 했던' 생활 사건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 4단계 중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미현 등의 척도와 달리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각 문항은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친구사이에 인기가 없어서', '성적이 떨어질까 봐' 등과 같이 기술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척도의 적용 방식과 절차에 대한 더욱 상세한 안내가 제공된다면 연구자들이 참고하여 척도를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척도는 3개월간의 스트레스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아동이 측정 당시에 지각하는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요인화 과정을 통해 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교사관련 스트레스 영역은 3문항인 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 문항은 20문항에 달하는 등 각 요인별 문항수의 차이가 큰 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각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 등에 사용되었을 경우 해석상의 오류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위의 두 척도는 국내외의 스트레스 척도들을 바탕으로 하여 수차례의 면접 및 조사를 거쳐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상황들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문항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 사건 중심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어서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연령의 하향화를 고려할 때,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분석 대상 연구들에서 이용되었던 스트레스 척도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후기 학령기 아동 대상 위주의 척도가 대부분이라는 점, 외국의 척도를 번안한 경우에는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문항이 포함되어있는 점, 주요 척도들이 10년 이상 되어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며 표준화된 규준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영역별 요인화가 자의적이거나 필수적인 요인이 빠져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이유

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연구 목적에 따라 기존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의 유아와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충실히 반영하고 체계적인 요인화를 거친 스트레스 측정 척도가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연령이 어린 유아와 저학년 아동들에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보완이 요구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우수한 수준의 국내 학회지를 중심으로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등재 후보 포함) 학회지에 게재된 97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대별 동향, 연구 대상, 내용, 방법의 동향, 그리고 주요 척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9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하였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민하영·유안진, 1998).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와 가정 등 일상적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과, 스트레스가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면서(신은영·김정연, 1996; 지금수 등, 1997),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게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에도 관련 연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고, 특히 유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폭넓은 분야의 학회지에서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를 다루게 되었으며, 스트레스를 중재하고 치료하는 데 목표를 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생활상으로 인해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어 학령기 아동 뿐 아니라 영유아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연구 대상의 연령 역시 하향화되고 이를 위해 유아 대상의 스트레스 연구방법이 개발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본다.

둘째, 유아 또는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단일연령보다는 혼합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별 비교를 한 연구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유아나 아동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나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발달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1990년대 전반까지도 유아나 아동 대상의 스트레스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그 당시만 해도 유아나 어린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는 인식이 주목받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가 점차 등장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대상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조기 사교육, 왕따나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들과 맞물려 아동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정원주·윤종희 1997)을 입증하듯이, 학령기 아동 대상의 스트레스 연구가 급증하였다. 또한 90년대 후반에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취학 이후 물리적, 심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뿐 아니라 유아 대상의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체감하는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연령이 영유아로 내려오는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연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지난 20년간의 유아 및 아동 스트레스 연구의 내용은 연구 설계상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다루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에 편중되었다. 이들 요인의 내용은 주로 자기지각, 지능, 대처 양식 등 아동의 내적 특성과 양육태도, 보육 환경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 및 교육활동 참가 등이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유아 및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각적, 입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가 증가하여 개인 내적 특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함께 고려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미치는 여러 변인의 영향력을 보다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변화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스트레스에 미치는 일방적 영향만을 탐색하고 있어서 이와 함께 스트레스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관계를 탐색하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 더해, 스트레스가 유아 및 아동의 발달, 건강, 생활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보다 종합적인 양상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유아 및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나날이 높아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김보림·엄정애, 2007)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양상을 보던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심각한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유아 및 아동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실제적으로 건강한 아동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질

문지 조사와, 관찰 및 면접이 주로 쓰였다. 특히 유아나 아동이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의 질문지 조사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부모나 교사를 통해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질문지법을 사용한 연구들 가운데,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에 포함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유아들에게는 지필 응답 방식의 질문지 보다 면접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관찰법도 이용되었다. 연령이 어린 유아들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하며 생태학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척도의 개발 자체부터 연구로 이어진 이들 도구는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이끌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방법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로 나타나, 문헌 고찰이나 사례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등의 질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본 연구와 같은 문헌 연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의 사례연구나 아동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상황과 환경을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질적 연구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한편, 패널조사를 활용한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조사 자료는 대규모 종단자료로서의 의의가 있으나 측정 척도와 관련하여서는 제한점이 있다. 전체 척도가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다수의 문항들로 구성되다 보니, 각 주제별 문항의 수는 매우 적고 이에 따라 측정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경우, 부모, 학업, 친구, 외모, 소유관련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요인 구성의 신뢰성을 높이고 문항구성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패널조사 자료에서 측정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련 문항의 타당성을 높여 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기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아동 패널조사 역시 2008년에 태어난 신생아들부터 대상으로 하여 시작된 상황에서, 영유아와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척도 및 관련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기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측정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보완과 함께, 특히 어린 유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연구 대상인 유아가 직접 응답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김수미·이숙, 2007), 유아 대상의 면접용 척도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보다 정확하고 타당하며

간단하게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요인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적은 문항으로 경제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용이 편리한 유아용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하게 면접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면 교사, 상담사 등 유아와 친숙한 성인이 교육현장과 상담기관 등에서 일차적으로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회의 스트레스 증가와 스트레스 연령의 하향화로 그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해지지 못했던 유아 및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새로이 대두되는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돌아보고 정리하여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이를 보완해나가는 데에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스트레스 측정 방식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스트레스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대상 연령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 결과가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또한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유아와 아동 관련 학회지에 국한하지 않고 분석 대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회지로 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단계에 걸친 검색에도 불구하고 1990-2009년 사이의 게재된 스트레스 관련 논문 중에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아 및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 등의 세분화된 스트레스원이나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개별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논의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후속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 및 중재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상위연구가 필요하다. 유아와 아동의 스트레스를 탐색한 계량적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메타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영향력, 스트레스를 중재해주는 변수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뢰도, 타당도, 시대적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유아, 아동 대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어린 유아들부터 학령기 아동들까지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고려하고, 규준의 최신성을 갖추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반영하고, 적용하기에 편리한 척도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더욱 활발한 연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

는 유아와 아동들을 진단하고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관리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스트레스의 개념과 스트레스에 따르는 문제 등을 교육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예방적 효과가 검증된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의 요소를 도입하며, 명상, 요가 및 상담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어린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고영미(1995).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 윤진 · 문은영(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 김길임 ·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3(5), 139-151.
- 김미예(2005).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및 건강 문제. **아동간호학회지**, 11(1), 83-89.
- 김보림 · 엄정애(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김수미 · 이숙(2007).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1(2), 89-104.
- 김영천 · 조재식(2001). 교육과정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교육 인류학연구**, 4(3), 25-81.
- 김용수 · 박현주(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분석. **아동교육**, 17(4), 63-76.
- 김정원 · 이정화(2002). 유아의 방과후 활동 경험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121-137.
- 김지영(2006). 유아 수학평가 도구를 사용한 수학 연구의 동향 분석: 1981년 이후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1), 233-252.
- 김혜경 · 류왕효(2006). 시간 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07-225.
- 문혁준(2006). 시설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인 연구: 정서 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0), 1-8.
- 민하영 · 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박은주 · 조희숙(2001).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논집**, 10, 161-185.
- 박원희 · 오윤자(2008).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 **아동교육**, 17(4), 167-176.
- 박화운(2005). 놀이영역과 활동형태에서 유치원의 질에 따른 유아스트레스 행동. **한국영유아보육학**, 16, 73-96.
- 박화운 · 안라리 · 하양승(1998). 종일제와 반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의 유아스트레스 행동. **유아교육연구**, 18(2), 135-155.
- 신은영 · 김경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7.
- 신의진(2002). 조기교육과 발달병리적 문제: 한국 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9-42.
- 안라리(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종일제 유아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영 · 정승원(1999). 양육환경과 기관의 질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4), 141-158.
- 엄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67-82.
- 엄현경 · 김태련(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분석 연구-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35-48.
- 우남희 · 백혜정 · 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우희정(1996).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2), 43-51.
- 유수경 · 황해익(2007). '유아교육연구'에 나타난 질적 연구 논문의 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27(2), 295-321.
- 이문옥 · 이지영 · 이방실(2006). 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1996-2005. **유아교육연구**, 26(5), 401-424.
- 이윤경(1992).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학급 집단 크기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활동 형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린이육영회 학술보고서**, 3, 7-12.
- 이윤경(1994). 유아교육프로그램의 학급크기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활동형태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4(2), 153-169.
- 정성배(2003). 음악활동이 특수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25, 37-55.
- 정동화(2002).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교육문제 연구**, 17, 135-153.
- 정원주 · 윤종희(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87-99.
- 조소진 · 문혁준(2006).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3(1), 5-25.

- 조봉환(2006).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아동교육*, 15(3), 5-21.
- 지금수 · 이영환 · 박성욱 · 한종혜(1997). 한국과 미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61-273.
- 최미숙 · 황윤세(2004). 유아발달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24(5), 187-205
- 한미현 · 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한미현 ·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태숙 · 김연 · 황혜정(2005). '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1994-2004. *유아교육연구*, 25(3), 219-238.
- 허우정 · 황혜익(2006). 유아교육 관련 학회지 수록 논문의 동향 분석. *영유아보육연구*, 8, 23-40.
- 홍광식(1994). 학교 스트레스의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8, 95-108.
- Band, E. B.,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Burts, D. C., Hart, C. H., Charlerworth, R., & Kirk, L.(1990). A comparison or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strument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07-423.
- Elkind, D.(1988).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Rev. ed.). MA.: Addison-Wesley.
- Henniger, M. L.(1994). Play: Antidote for childhood stress. *Early Development and Care*, 105, 7-12.
- Humphrey, J. H.(2004). *Childhood Stres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haworth press, Inc. N.Y.
- Johnson, J. G., & Rornstein, R. F.(1991). Does daily stress independently predict psychopath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58-74.
- Lazarus, R. S., & DeLongis, A.(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y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s*, 38, 234-254.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linger published company.
-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2001).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s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5), 561-575.
- O'brien, S. J.(1988). Childhood stress: A creeping phenomenon. *Childhood Education*, 65, 105-106.
- O'brien, R. W. & Iannotti, R. J.(1990). *A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of life stress in the children's liv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9 495.
- Parfenoff, S. H. & Jose, P. E.(1989). *Measuring daily stress in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Taki, M.(2001). Relation among bullying, stress and stressor: A follow-up survey using panel data and a comparative survey between Japan and Australia. *Japanese Society*, 5, 118-132.
- Waters, W. F., Rubman, S., & Hurry, M. J.(1993). The prediction of somatic complaints us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Response Inventory(ANSRI) and the Daily Stress Inventory(DSI).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2), 117-125.

- 접수 일 : 2010년 01월 15일
 심사 일 : 2010년 02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4월 01일